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내년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창조 도시 만들것”

노관규 순천시장

“일류 시민의 품격과 신뢰받는 행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5일 광주일보와의 대담에서 “14년 전인 2008년 이미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선언했다”며 “생태수도라는 선언에서 더 나아가 생태수도 완성에 마침표를 찍고 독보적인 일류도시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재도약의 시작은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라고 강조했다. 대도시를 흉내 낸 양적 팽창보다 ‘순천다운 것’을 지키면서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도시,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순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노 시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도 약속했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관건이다. 성공 개최 자신 있다.

▲ ‘일류순천’으로 재도약하는 첫걸음은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다. 생태수도를 선포했던 철학과 2013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유치, 조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를 위해 조

쓰레기 수거·처리 친환경적 녹색경제로 전환 일자리 창출 광양·여수 동부권 통합, 경남 서부권 아우르는 메가시티 조성

직위 사무처를 확대 개편했다. 속도감 있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본부장을 필두로 능력 있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배치했다. 남은 기간 세부적인 부분들을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원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할 계획이다. 과감하게 비우고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분할 것이다. 박람회장이 동천을 통해 도심으로 확장되는 만큼 동천을 활용해 야경과 뱃길을 선보이는 새로운 모습의 그린웨이를 구상하고 있다.

-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비전의 구체적 복안은.

▲순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지금, 대도시를 모방하는 것으로는 순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단순하게 1등을 하지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표준을 창조하는 도시, 일류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라는 3개의 시정 방침 아래 42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대표 공약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청림도 향상,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 유치, 탄소

중립으로 살아가는 경제, 농촌(스마트팜)으로 출퇴근하는 역대 연봉 청년 육성,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예술의 전당 건립, 스포츠 파크 조성, 정원 후방산업 육성이다. 4년 동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해 시민 스스로 높은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 창의적인 인재가 찾아오고 미래기술이 접목된 혁신산업 생태계가 숨 쉬는 창조도시, 일류도시를 만들겠다.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언급했는데, 그 구상은.

▲14년 전 ‘생태’가 가진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생태수도 순천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생태수도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순천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수거부터 처리까지 친환경적 녹색



색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양, 여수 등 동부권의 통합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 선거 과정에서 지역 내부 분열이 노쳤었다. 화합할 대책이 있다면.

▲갈등은 가졌으나 회사에도 있기 마련이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정치는 앞을 보고 가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니 갈등이 증폭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국회의원의 그것과 다르다. 국회의원은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체장은 민주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효율성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잘 조화시키며 순천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더 나은 지역을 위한 더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과정은 잊고 순천시를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도의회·시의회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순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시 세 손 잡아주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정말 일하고 싶다.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다. 저를 선택하신 순천시민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것을 변화된 시정 운영을 통해 반드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노관규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시, 5개 인공지능 기업과 100억대 투자 협약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등 AI 마케팅 랩 등도 구축

광주시가 수도권 유망 인공지능 기업들과 1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AI) 관련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펜타토닉, 비엔에스글로벌, 엘젠, 에이아이비즈다.

기업들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108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광주에 AI 데이터 기반 마케팅 랩을 구축하기로 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 2월 광주시와 1000석 규모 AI 콘택트센터 투자협약에 이어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글로벌 업무처리 아웃소싱(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기업인 트랜스코스모 그룹의 가장 큰 해외 법인이다.

펜타토닉은 인공지능 컨택센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엔에스글로벌은 제1금융권과 정부 투자기관의 전산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에 23년 경력을 지닌 전문기

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엘젠은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기반 솔루션·패키지·서비스 등 고객 응대 전문기업으로 2016년에 대구시 민원 상담 로봇 ‘뽀뽀’를 내놓은 선두기업이며, 에이아이비즈는 인공지능 스마트 키오스크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 수다방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 제공,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 기업의 투자 실행과 관련된 제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신청하세요

광주시, 주민신청제 운영

광주시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점검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기간을 정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생활 주변에서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필리핀·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 161만달러 수출 계약

비더블유코리아 등 8개사 참여

전남도내 기업들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161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가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현지 바이어의 호응이 높아 새로운 수출선 확보에 정진호가 커졌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15일까지 5일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61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렸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대면 마케팅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전남 지역 농수산물기업 5개사와 화장품 등 공산품 3개사가 참여했다.

국가별로 지난 12일 필리핀 수출상담회에서 2개사가 2건 61만 달러를, 14일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에서 1개사가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필리핀에선 ㈜비더블유코리아가 탈모 방지제품, ㈜백건준설이 수목양용준설선 등으로, 인도네시아에선 경향산업(유)이 보온·보냉단열재로 수출 기회를 잡았다. 이밖에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해 1천918만 달러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밝혔다.

제품 종류별로 북하특품사업단(주)은 젓갈류, ㈜네이처퓨어코리아는 건강기능식품을, (주)해농, (주)골든힐, 안도맘은 식품류를 수출했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계 시장 진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수출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5th Muam Lotus Festival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